'도깨비 방망이' 받은 청소년 5명의 특별한 5월

희망 생기니 공부가 즐거워요

광주 YMCA '희망 주기' 프로젝트 대상자 선정

공부방·컴퓨터·가족 치료비 등 소원 성취 노력

중학교 입학 후 첫 어린이날을 맞는 송준기(13)군의 올해 5월은 특별하다. 엄마, 두 동생과 사는 준기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생겼기 때문이다. 광주 YMCA가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한 '도깨비 방망이' 프로젝트〈본보 2월13일자 15면〉의 대상자 5명에 선정된 것이다.

준기의 소원은 책상과 옷장이 따로 있는 방을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준기는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인 윤기, 민기와 거실에 마련된 책상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엄마 방우현(37)씨도 중학교 들어간 준기가 제 방도 없이 비좁은 거실에서 어린 동생들과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2년 전 이혼한 뒤 하남공단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겨우 생활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허리 수술을 하느라 다섯 달째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50만원 정도 나오긴 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이니…."

남편 역시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떠안고 있는 상태여서 경제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방씨는 세 아들 모두 착해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준기는 "도깨비 방망이가 주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엄마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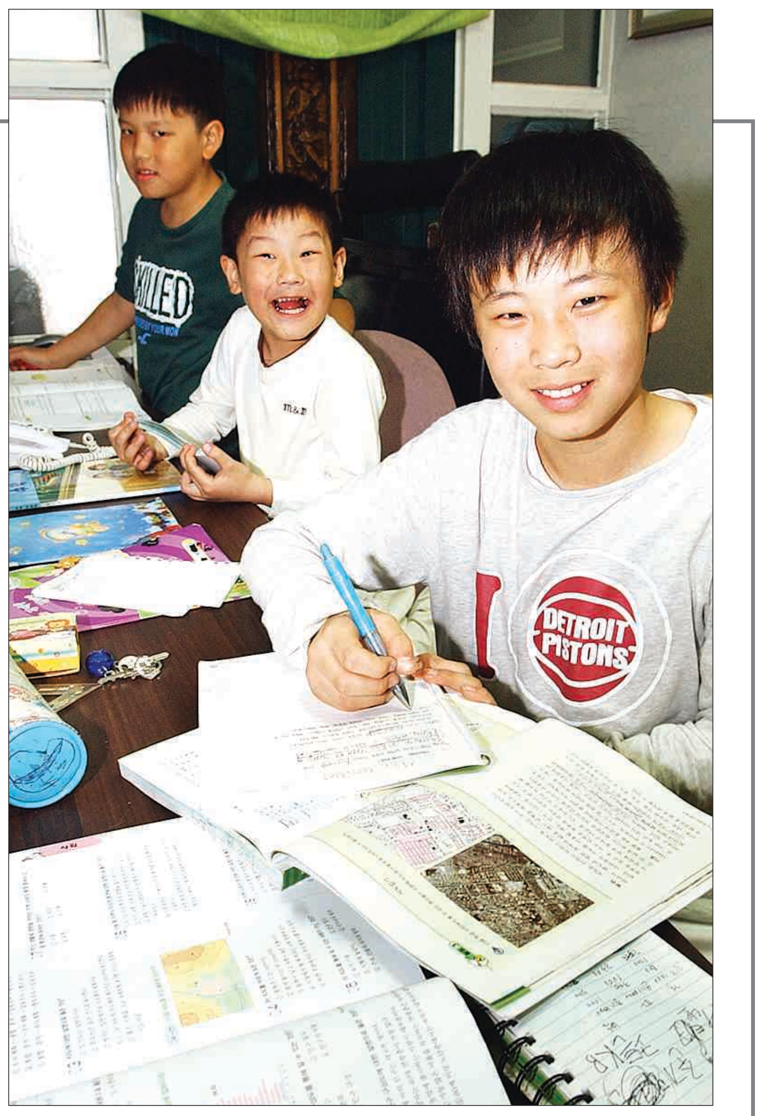
준기는 앞으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 과제를 이뤄내야 한다. '수학 점수 5점 올리기'가 그것이다. 수학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어서 도전 과제로 선택했다는 것이 엄마와 준기의 설명이다. 준기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수학 성적은 60점 수준. 준기는 곧 시작되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긴장된 모습이 역력하지만, 소원 성취에 대한 희망 때문에 마냥 기쁘다.

정신지체 3급인 이동현(16)군은 일용근로자인 아버지와 몸이 아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두고 있다. 영어를 좋아해 '영어 공부를 위한 전자사전'이 갖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다. 동현이는 풍선아트에서 배운 것들을 만들고, 영어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읽으면 도전 과제를 성공하게 된다.

출생 중 사고로 장애인이 된 여동생을 가진 '고3' 백설(17)양은 보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보건 교사가 되면 치료비 걱정 없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설이가 원한 것은 컴퓨터와 프린터기. 도전 과제 수행기간 동안 전교 10등 내에 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들 외에 이찬양(15)군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박지영양은 생활비를 위해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 YMCA 서구지회 이운기(34) 간사는 "선정된 아이들에겐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안타깝지만 모두가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YMCA의 '도깨비 방망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송준기(맨 앞) 군이 동생들과 함께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나원참 〈7201〉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문화재보호구역도 모르고…

여수시 다리 공사 착공 뒤늦게 중단 혈세 8억 날려

여수시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다리 공사를 하다 뒤늦게 위법 사실을 알고 공사를 중단,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여수시는 지난 2005년 12월 착공한 화정면 사도~낭도 인도교 공사를 지난 2월 중단했다. 이 다리는 ▲길이 430m ▲너비 4.6m 규모로 내년 3월 완공 예정이었다. 여수시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 이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모르고 사업을 강행했었다.

시는 뒤늦게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지난 1월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및 화석층 보호관리 필요'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공사를 중단했다.

인도교 가설현장인 낭도리 인근 6만4천㎡는 공룡발자국 화석지 및 퇴적층으로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돼 있다. 또 사도 바로 옆 추도에선 세계 최대인 84㎝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돼 문화재청이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 인도교는 전남도가 서남해안을 15개의 테마별로 개발하려고 추진 중인 '다도해 개발 사업' 가운데 첫 번째 사업이지만 공사 중단으로 개발 사업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국비와 시·도비 등 사업비 68억 가운데 지금까지 투입된 8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당시 실시설계 용역서에 해당 지역이 현상 변경 대상지역이라는 언급이 없어 그냥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관광선 운항 등 사도~낭도를 오갈 수 있는 대체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함평 이팝나무 67년만에 고향에

일본에 건너간 함평 이팝나무가 6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松江)시 이팝나무 애호회(洞陀羅會) 회원 10명은 4일 함평군 함평읍에 위치한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영화학교를 방문, 일본에서 가져온 3~4년생 이팝나무 10그루를 심었다.

1940년에 건너갔던 100여 그루 '뿌리' 찾아

日 마쓰에市 애호회원들 영화 학교에 식재

일본 마쓰에시 이팝나무 애호회원들이 4일 함평 영화학교 교정에 이팝나무를 심고 있다. 아래는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의 300년생 이팝나무.
/함평=송기동기자 song@

이날 식수행사는 1940년 3월 전남도청 산림과에 근무하던 일본인 스기사카(彬坂 治·작고)씨가 정년을 하면서 귀국시 이팝나무 어린 묘목 100여 그루를 가져간데서 비롯됐다. 이 나무들은 마쓰에성(城) 주변에 심어졌으며, 개화철인 매년 5월이면 일본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팝나무가 희귀해 이름도 '난자몬자'(이것이 무엇이냐는 의미)라고 불렸다.

마쓰에시 이팝나무 애호회는 최근 서양화가 김영태(81·광주시 동구 소태동)씨를 통해 이팝나무의 '뿌리'를 찾게 돼 귀향 식수를 추진했다. 9년 전 결성된 이팝나무 애호회는 회원 90여 명. 올해 마쓰에시 가로수로 240그루를 심고, 시민들에게 묘목 800그루를 나눠 줄 계획이다.

고하다 슈스케(78·木幡修介) 애호회장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마쓰에 이팝나무의 '뿌리'를 비로소 찾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친선교류가 증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푸레나무과의 이팝나무는 입하(立夏) 무렵에 쌀밥을 연상시키는 흰 꽃으로 뒤덮이며, 농부들은 꽃의 만발 여부로 그 해 농사를 점치기도 한다. /송기동·박영진기자 song@kwangju.co.kr

대기업 취직 알선 사기

수천만원 챙긴 2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4일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 만원을 가로챈 전 A자동차 부품 영업사원 송모(26·광주시 광산구)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북구 두암동 S할인점 1층 입구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김모(26·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씨 등 2명에게 "광주 K자동차 인사과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여고생 성추행·촬영

10대 고교 중퇴생 검거

광주 광산경찰은 4일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고교 중퇴생 양모(16)군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군은 광주 모 고교 2년 P(16)양에게 '사귀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광산구 B병원 옥상으로 유인, 강제로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신고하면 퍼트린다"며 협박한 혐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어린이 날 나들이 길 쾌청

밤부터 흐려져 내일 비

'어린이날'은 야외로!

광주지방기상청은 "'어린이날'인 5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 22~27도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밤에 차차 흐려지겠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6일에는 흐리고 한 때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예상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상청은 그러나 비가 오더라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당분간 한낮 더위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일 낮 기온은 순천 28.4도를 최고로 광주 26.8·정읍 25.7·진도 25.6도까지 올라가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올 들어 최고 낮기온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학원생 폭행한 학원원장 구속

학원생들을 폭행, 상처를 입힌〈본보 2일자 7면〉 학원원장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4일 원생들에게 얼차려를 주고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광주 M학원장 윤모(47)씨를 상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문학원에서 이모(12·중1)양 등 중학생 7명과 김모(10·초교 5년)군 등 8명의 학원생에게 기합을 준 뒤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윤씨는 전날 오후 한 학생이 손가락으로 자신을 조롱했다고 판단, 술을 마신 상황에서 학원생들에게 각종 얼차려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얼차려를 주는 과정에서 강의실 밖으로 잠시 나온 뒤 다시 들어갔으나 "원생들이 안에서 문을 잠갔다"며 격분, 이양 등을 순서대로 불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

초여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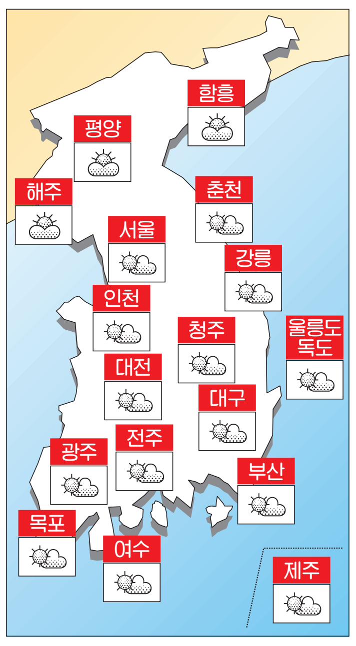
오후 늦게부터 흐려지겠다.

5월 5일 (음 3월 19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차차 흐려짐	16~26℃
목 포	차차 흐려짐	16~24℃
여 수	차차 흐려짐	15~22℃
완 도	차차 흐려짐	14~25℃
구 례	차차 흐려짐	13~27℃
해 남	차차 흐려짐	13~25℃
장 흥	차차 흐려짐	13~26℃
고 흥	차차 흐려짐	13~23℃
순 천	차차 흐려짐	13~27℃
영 광	차차 흐려짐	14~24℃
진 도	차차 흐려짐	15~25℃
전 주	차차 흐려짐	15~26℃
남 원	차차 흐려짐	13~27℃
정 읍	차차 흐려짐	14~26℃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남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03:52 15:49 썰물〈09:07 21:02
여 수 밀물〈10:26 23:00 썰물〈04:31 16:20

▲해뜸 05:38 ▲해짐 19:21 ▲달뜸 22:22 ▲달짐 06:5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날 씨						
최저/최고	14/26	15/27	15/28	16/27	15/28	14/27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 풍영정천·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10대들이 영화 모방 강도짓

공포 영화 '분신사바' 속 폭행 장면을 그대로 흉내내 돈을 빼앗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K(15)군과 J(13)군은 지난 1월1일 오전 6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18·고 3)군의 집 안방에서 C군이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화장지를 물린 뒤 얼굴에 종이 가방을 씌워 폭행하고 현금 1천800원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K군 등은 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인터넷 채팅에 사용된 C군의 컴퓨터를 파손한 뒤 달아났다.

중학교 친구인 K군 등은 지난해 12월31일 가출 한 달 만에 돈이 떨어지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군에게 "머무를 곳이 없는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 집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상습 오토바이 절도 고교생 등 3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4일 주택가 등지에서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광주 모 고교 S(17)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군 등은 지난달 16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정모(44)씨의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등 오토바이 8대(시가 6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이종행 기자 golee@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씨티銀 여성직원에 생리휴가 근로수당 15억여원 지급하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4일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성 직원 1천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년간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금융권이 과거 여성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생리수당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생리수당 지급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2003년 9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시 기존에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면서 해당 여직원들은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훔쳤다던 수갑 가짜 판명 경찰 안도

쌍나팔

○…광주 북부경찰은 4일 10대 상습 차량털이들이 "경찰 장비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문제의 수갑은 1990년대 제작된 사제품이라고 해명.

○…경찰은 지난 1일 광주 북구 일대를 돌며 차량을 턴 홍모(17)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던 중 이들이 "수갑과 가스총을 훔쳤다"고 진술하자 경찰 장비가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한때 긴장했던 것.

○…경찰 관계자는 "도난품을 회수해 확인한 결과 경찰 마크나 일련 번호가 찍혀 있지 않은 일반 수갑이었다"며 "가스총도 훔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